

연중 제4주일(사회복지주일)

제1독서 : 신명 18, 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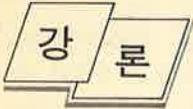
제2독서 : 1고린 7, 32-5

복 음 : 마르 1, 21-28

순정이

“나자벳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르 1, 24).



마음의 배려를



권완성 신부/금암동 천주교회

오늘은 사회의 영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홍보하는 사회복지주일이다. 그들은 굶주리는 것이 죄는 아닐진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병이 죄는 아닐진데, 병 때문에 좌절하며 사회의 그늘진 눈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언어상으로는 존재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아픔을 내 그릇에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나는 신학생 시절에 나환자촌을 방문하여 10일 동안 교리를 가르치며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도착하는 첫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슬프게 하고 말았다. 차에서 내렸을 때 많은 공소신자들이 마중나와 있었고, 공소회장이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썹 없는 얼굴하며, 충혈된 눈하며, 비뚤어진 입,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보는 순간, 거의 본능적으로 악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며 회피하고 말았다.

그 순간, 공소신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눈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나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돌을 던졌다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보잘 것 없는 형제 속에 있는 주님을 배반하였다 생각하니, 땅에 엎드려 슬피울은 베드로의 배반과 같은 눈물이 밤새도록 흘러나왔다.

그날 밤 회개와 더불어 며칠이 지난 후에야 그들과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이면에 숨겨진 눈물도 볼 수 있었다. 특히 병자 방문 때의 일이었다. 나환자 중에는 노환이나 다른 병으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는 나환자들도 있었다. 그들을 방문하여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주고 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상처가 많은 그들의 입에서 “학사님,

감사합니다.”하고 흘리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히 굶주리는 사람, 병든 사람 등 소외된 사람에게 마음의 배려를 많이 하셨다.

우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전부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부를 항상 소외된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는 노부모나 큰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일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절대빈곤이 아닌 이상 가난한 사람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굶주리거나 소외된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의 실천은 온전한 것이 될 것이다.



냉담자(?), 누가 그들을 멀어지게 했는가

한상갑(바오로)

■ 교회 밖에 있는 신자, 4명에 1명꼴

가톨릭 신문은 지난 해 「전교의 달」을 맞아, 냉담자 증가 원인과 대책(10월 10일자)등에 대한 특집 기획을 3회에 걸쳐서 다룬 바 있다. 통계 분석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큰 글자로 뽑은 제목들을 보면 이렇다. -10명 중 1명 이상 냉담증/거주불명자 합치면 4명에 1명꼴/사립과 나눔 본연의 내적 쇠신 절실/교회 권위주의·비대화·경제적 부담 등 큰 원인.

1982년 말의 천주교 신자 총수는 1,578,017명이고, 1992년 말의 신자 총수는 3,066,733명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50만 명에 가까운 신자가 늘어난 것이다. 해마다 평균 14만8천9백 명씩 늘어난 셈이다. 다르게 쟀해보면 10년 만에 신자의 수가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10년에 2배로 늘어나지는 않았으니, 인구증가에 비해서 선교활동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되겠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1992년 말 현재의 신자수가 306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75만 8천여 명(냉담자 345,902명, 거주불명자 412,435명)이 교회 밖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체 신자의 11.3%가 신자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13.4%의 영세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전체 신자의 24.7%가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992년 말 현재의 신자총수는 306만 명이 아니라 231만 명이라는 것이다.

■ 누가 이들을 밖으로 밀어 냈는가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가도 이를 멀리 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그 첫째는 물질문명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이다. 이는 세속화, 물질만능주의, 종교 무관심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든다.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권위주의에 대한 신자들의 인간적인 실망과 이에 따르는 거부감이다. 그리고 도시 본당의 비대화로 인해서 신자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속으로는 구멍이 크게 뚫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복적(祈福的)인 종교관이 문제라는 것이다. 속된 말로 무엇이 약이 될런지 모르니 예수·석가·무당을 가리지 않겠다는, 다(多)종교관이 바로 그것이다.

어찌 되었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권위주의,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이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사제나 수도자에게서도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사목회 임원이나 가진 자들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주범이다. 그것은 어느 특정 계층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다.

■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 마디로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대방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일이다. 그것은 곧 초대교회 모습처럼 사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남보다 앞에서 있는 사람이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을 이끌 처지에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부터 먼저 하면 되는 것이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 마디로부터.



숲정이 산책



신품성사 기념사진

또 다른 예수를 찾아서

권영례(데레사) / 전동 성당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맞갖는 능력을 주시되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명하셨다. 따라서 내가 갖는 모든 의지와 지력, 그 어떤 것도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닌, 서로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며, 우리는 언제나 구원과 공동선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영달과 허명(虛名)과 안위만을 고집하며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는 먼 봉사가 되어간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도 깨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초연한 삶을 사는 이가 있다.

전동 성당의 권영례(데레사, 51세)씨다. 30여년 전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의 자녀를 둔 데레사 씨는 우연한 기회에 한 친구로부터 좀더리 쌀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가슴에 깊게 와 닿고 작은 몫이나 조금씩 뜻을 모으면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될거라는 확신으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건의를 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공동체 안에서 뜻을 모으기가 어려움을 깨닫고, 몇몇 친분있는 신자들과 개별적으로 쌀, 의류, 김치 등을 모았으나 마땅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돕는다는 자신들이 행여 교만한 생각이 들까 겁이 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 편에서 부담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깊은 염려와 겸손이 주저하게 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복지회를 찾아 '사랑의 다리'와 인연을 맺게 된 지 10여 년, 한결같이 사랑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데레사 씨는 바쁘다.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에 참례해야 하고, 봉사자들과 회합을 갖고,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의 곤곤한 삶의 터전을 찾아 뛰어야 한다. 2인 1조가 되어 독거노인을 찾아가 빨래와 청소를 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함께 하며 정신적 물질적 나눔을 아끼지 않는다.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무의탁 노인의 수술비가 막막할 때 남편이 몸담고 있는 영생여상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시력을 되찾아 드렸다. 데레사 씨는 각 사회복지단체나 시의 영세민 대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더 염려한다. 그래서 쌀을 지원해주고 식비를 절약해서 방세를 마련하도록 돕는다. 92년에 본당에 순수 봉사단체로 창설된 '빼에따'회가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회합을 갖고 활동량을 배당받아 병자와 무의탁 노인들과 극빈자, 소년 소녀 가장을 찾아나서

는데, 준회원들이 물질적 지원을 한다. 교회 내 복지단체에서만 활동하다가 93년부터는 시청의 봉사 요청을 받고 독거노인들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다. 활동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각 복지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의 주변환경(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도 무관심한 인척들)을 계산에 넣고 제외시키는 경우와 청소년 가장들이 자칫 의타심을 갖게 되는 경우 마음이 아프다 한다. 배푼다고 무조건 덕이 되지 않음이다. 청소년 가장들에게는 물질적 도움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자립코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갖도록 교회 차원에서 정신적인 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라면 편견없이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사회복지 예산만이라도 전액 환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이 받고 온다고 생각하는 데레사 씨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모든 활동을 봉사가 아닌, 당연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삶과 건강 주심을 감사한다.

일반 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때가 이르러 맛을 알게 되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자신들의 몫을 성실히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잔잔히 짓는 미소에서 지고한 믿음과 겸허와 성숙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본다. 교회의 가르침과 본당의 사목지침에 따라서 더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이름 석자가 밝혀지지 않기를 당부한다. "네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는 말씀을 생활신조로 삼고 몸소 실천하는 데레사 씨는 자신은 몸만 뛰며 가족 모두가 함께 봉사한다면서 가족들이 주는 이해와 협조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하느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을 살면서, 나눔과 섬김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총이며 어휘만으로도 좀 좋은가.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거창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닌, 언제나 초라하고 질박한 모습인 채로 그렇게 늘 우리 곁에 계신다.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뵈울 수 있을 때, 당신의 말씀에 귀기울일 때, 우리의 내밀한 곳에 당신을 모시고자 소망할 때, 언제인가 싶게 살며시 오셔서 빛이 되신다. 더 큰 빛으로 살기를 기대하며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갑 1994년 전주교구 사제 · 부제서품식 사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힘입어 저의 교구에서는 1명의 부제가 사제로, 7명의 신학생이 부제로 서품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함께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제서품식
- 부제서품식

일시 : 1월31일(월) 오전10시30분 장소 - 중앙 성당 주례 - 이병호 주교

■ 사제서품자 명단 및 첫미사 일정



이득재(바오로)
2월1일(화)
오전10시30분
진안 성당

■ 부제서품자 명단



김근수(요셉)
금암 성당



김정민(라자로)
서학동 성당



김광석(요아킴)
원평 성당



백승호(토마스)
중앙 성당



송년홍(타대오)
시기동 성당



박동진(베르나르도)
평화동 성당



박인근(요한보스코)
오룡동 성당

(주) 선우관광
해외여행, 여권·비자·유학,
신혼여행, 성지순례, 항공권
이종길(요한)
이회준(요한비안네)
전주 상업은행 옆
☎ (0652) 87-9797
(0653) 855-4302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숙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운장회관

피로연 600석 완비
한광석(야고보)
전민자(올리아)
중앙 성당 ↔ 한양, 목원예식장
☎ 254-7533

종합 광고물 제작업체 무지개 광고기획

기념품, 상패, 간판
김창식(스테파노)
☎ 252-0207 FAX : 252-0208
팩스 015-681-0898

제4회 사회복지주일 담화문

굶주리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적극 실천하신 모든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즐겨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요한 12,8)고 하신 주님의 예언처럼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세계 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약 20억 명의 인구가 영양불량으로 절대빈곤 이하의 비인간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까지도 위태로울 정도로 굶주림과 영양불량으로 허덕이는 것은 나라들간의 나눔과 통교가 부족한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기아의 원인이 한 나라의 내전과 인종분규로 인한 정치문제에도 있고,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천재지변에도 있으나, 가난한 나라에 불리하게 짜여진 세계 경제구조 등 근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인간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에 항상 충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이웃”이란 말을 육체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으로 구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지금 눈 앞에서 상처입고 고통받으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이 한 운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던지 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영양섭취권은 생명권의 직접적 표현입니다”(FAO).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나 이유에서든 인간의 영양섭취권이 박탈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의 요구입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굶주림의 고통은 생존권과 인간 존엄성에 관계된 것으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웃집에 살던, 아프리카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모두 우리 “이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양식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금년도 아프리카의 기아 구호활동을 계속하면서 아시아 지역에도 그 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남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기아 인구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보다 더 많은 7억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를 위한 긴급구호만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개발 사업도 아울러 원조할 계획입니다.
 “영양섭취권은 피조물을 조화있게 충분히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매 식사 때마다 바치는 식사 전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고, 아울러 굶주리는 형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단순하게 줄이고 매끼 굶주리는 형제들을 위한 배려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가난한 자들은 가끔 소리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니짜의 그레고리오 성인).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 석 회 주교

요심이 (1066) 김병오



돈 보스꼬 청소년센터 기술훈련생 모집

- 대상 : 만16세-23세의 男 · 직종 : 선반, 기계조립 · 학력 : 중학교 중퇴-고졸 · 야간학교 :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반, 고급기술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28까지 · 문의 : ☎(02)833-4010

산 농 서 실

고영선(마태오)
송춘섭(로사리아)

효자우전 성당 · 삼호APT 앞
☎ 225-5580

프란치스코수도회(男) 성 소 피 정

<고등학생>

- 때 : 2.22. 오후 2시-24. 후 1시
- 곳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 교육관
- 준비물 : 목주, 필기도구, 미사책
- 참가비 : 10,000원
- 신청마감 : 2월20일까지

<대학, 일반인>

- 때 : 2.26(토)후 2시-27(일)후 1시
- 곳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 교육관
- 준비물 : 목주, 필기도구, 미사책
- 참가비 : 10,000원
- 신청마감 : 2월24일까지
- 문의 : (02)743-7015, 753-4637~8

'94 유치원생 모집

호남옹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위) 252-7313
 새호남(전주역앞) 253-1411
 호 자(삼천쌍용APT앞) 221-8331

성심 木 공업사

성구, 장의자, 제의대, 회의탁자
장농, 진열장, 실내장식, 각종 비품

서 옥 봉(스테파노)
한 은 순(안 나)

전주 럭키우아APT 앞
☎ 242-1747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언제든지 연락, 방문 가능

광주 북구 임동 67번지
☎ (062) 510-3040

뿌리를 찾아서 ④2

금마 성당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역사적으로 마한과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백제의 왕도 금마에 복음이 전래된 것은 1854년 갓점(감나무골)에서부터이며 1876년경 감나무골에 공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 공소는 1897년경 나바위 본당 관할에 속했다가 뒤에 전동 본당, 둔율동 본당에 이어 1958년 창인동 본당의 관할공소로 되면서 금마면 청사를 매입하여 금마 공소로 발족을 보았다. 금마 공소는 1959년부터 여산 본당의 관할공소가 되면서 전교사와 전교 수녀의 활약으로 교세가 신장하여 1968년 이 지역에 하늘의 Pr을 창설하고 이듬해에는 사도회를 조직, 공소 운영과 본당 승격의 준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78년 본당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1981년 4월 마침내 여산 본당에서 분가하여 본당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으며 본당의 후보성인으로는 성안드레아 김대건(7월5일)을 모시고 있다.

본당 공동체는 공소 강당을 사용하다가 신자수의 증가로 새 성당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1981년 금마면 888-1번지 하천 부지를 매수하여 인근 군부대의 도움으로 지면을 높이고, 1983년 3월 성전 신축 기공식을, 이듬해 12월 23일 성당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축성식을 가졌다.

본당은 사목협의회와 제단체를 조직하는 등 다각도로 지역 선교를 위한 발판을 다졌으며, 교우들의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

였다. 또 증거자들의 삶을 본받는 쇄신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자 재교육과 주간 성서 읽기를 특히 권장하고 있다. 1985년 2월부터 성모성심수녀회의 분원이 설치되면서 신자들과 한마음으로 예배와 인도와 냉담자 회도 등에 전력하고 있으며, 본당 관할구역의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품수집, 불우이웃돕기 모금 등으로 생활 필수품 등을 장만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학생가장의 세대를 도우며 생활하고 있다. 유아원이 설립되어 농촌지역의 유아교육을 통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지역 공동체이다.

명상의 자리

우리는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올리시고
 거만한 자를 낮은 곳으로 내치십니다.
 당신은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며
 죽이시기도 생명을 주시기도 하며
 절망에 빠진 자를 구해주십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중에 있는 자를 구해주시고
 넘어진 자를 낮게 해주시고
 멀리 가버린 자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간혀 있는 우리 형제를 풀어주시며
 수고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축! 개업
키친아트 전주특약점

혼수, 주방용품, 도자기 공장도가 판매, 각종 선물 답례품 상담
 변회철(요아킴) · 한미영(글라리아)
 효자동 신광빌딩 앞
 ☎ 224-8489

우리온돌 전북총판

· 연료 50% 절약 24시간 따뜻
 · 보일러용, 전기용(심야전기보일러)
 · 원격외선 쪼질용 전장침대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주임순(바울라)
 ☎ 78-1363, 1431

한국 최고의 유황수질
전주 송산 온천

최대의 시설, 신비의 모래찜
 국 장 호(요 셉)
 유 숙 자(수산나)
 ☎ 88-0887, 88-0888

동서가구 서부 대리점

이 건 무(요 한)
 효자동 전북은행 앞
 ☎ 224-8280~1
 222-8384

교 구 소 식

- ❖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 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
 - 때 : 2월6일(일) 오전10시
 - 곳 : 가톨릭센터
 - 대상 : 본당 및 교구단위 제단체장 및 기관 임원
- ❖ 사제·부제서품식
 - 때 : 1월31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중앙 성당
- ❖ 새신부 첫미사
 - 때 : 2월1일(화) 오전10시30분
 - 곳 : 진안 성당
- ❖ 제12차 선택 주말
 - 때 : 2월4일-6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대상 : 미혼 젊은이
 - 회비 : 40,000원
 - 신청 : 221-3711
-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2월5일(토) 오후3시
 - 곳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 성모의 기사회
 - 때 : 2월5일(토) 오전10시
 - 곳 : 효자동 성당

- ❖ 휘폴라레 모임
 - 때 : 2월5일(토) 오후2시
 - 곳 : 군산 개정간호대
 - 대상 : 일반인
- 때 : 2월6일(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대상 : 국교-일반인
- ❖ 푸른 군대 피정
 - 때 : 2월3일(목) 오전10시
 - 곳 : 덕진 성당
- ❖ 교도소 개학미사
 - 때 : 2월2일 오후1시30분
 - 후원 회원과 함께
- ❖ FAX 번호 안내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0652)83-9365
-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2월21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챔피언
 - 내용 : 소송사건에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는 변호사 고든은 사회봉사의 임무를 선교받아 꼬마 하키팀의 코치가 된다. 고든이 꼬마 선수들과 벌이는 기쁨 가득한 사랑이야기.
 - 회비 : 1,000원

- ❖ 축! 영명
 - 31일(성요한보스코)
 - 강명구 신부님

성소모임

- ❖ 성바로떨수도회
 - 때 : 2월6일 오후2시
 - 곳 : 성바로 서원 (0652)252-3398
- ❖ 살레시오수녀회
 - 때 : 2월6일 오후2시
 - 곳 :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 ❖ 동정 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0652)222-5269

■ 권해드리는 책 ■

· 아하, 하느님이 그런 분이예요!
이현주 지음/생활성서사
“어른, 어린이가 모두 성서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말씀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어 마음 안에서 ‘아하!’하고 탄성을 발하게 하는 책.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물 오염

우리나라 강은 상류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 전국의 5대 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만경강은 이미 중금속 농도의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들 하천 오염이 원인이 되어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과일, 농산물 등이 다시 오염되고 있다.

이렇듯 강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은, 정화되지 않고 대량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이다. 따라서 물

오염을 방지하려면 우선 기업들이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물품을 생산해야 하며, 정부는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에 힘을 기울여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중금속이 포함된 공장폐수의 경우 공해 방지시설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가정에서도 샴푸, 트리오, 합성세제 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우리밀 선물세트 판매

· 내용 : 우리밀 백밀가루, 우리밀 칼국수, 우리밀 마른국수, 2분도 통밀, 통밀차 · 가격 : 1세트 10,000원, 회원에게만 수량에 관계없이 판매
· 문의 : 231-6387, 85-4205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협의회 대표 권이복 신부

파티마 성모수녀회 성소자 피정

· 때 : 2.19(토)후 6시-2.20(일)후 5시
· 곳 : 본원(용인군 수지면)
· 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고졸 이상 30세 미만 미혼여성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 (0331)282-5883, 5249 2.18까지

백제 꽃시장

제일 예식장 앞
☎ 78-2002

금암 꽃나라

금암아파트 앞
☎ 73-0574

서은석(필립보) · 양소은(테레사)

94년도 원아모집

한겨레 웅변학원

유아부, 유치부(4세-7세까지)

이혜숙(소피아)

금암2동 파출소 앞(남양맨션 옆)

☎ 77-7114 (야) 77-3769

확장 이전

원 미술학원

입시반, 예비반(중고1,2), 취미반(뱃생·유화·수채화) 성실한 지도를 약속합니다.

김준태(시몬)

서도송동 구 명문학원 3층
☎ 231-5285, 86-0059(자택)

믿음의 나눔자리 안내

· 신앙의 초심자들을 위한 신앙자료지
· 내용 : 교리, 전례상식, 성서해설, 신앙체합기, 명상, 문화란 등으로 구성 · 1년10회 발행, 1년 회비 8,000원(회원제로 운영하며 전화로 신청 가능함) · 문의 : ☎(02)275-0691(월~금9시~17시) FAX : (02)277-4492 믿음의 나눔자리 편집부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4주일: 사회복지주일(2차 헌금있음)

1. 사제 서품식: 31일. 전10시30분 중앙성당. 2. 주의 봉헌 축일: 2일. 후7시. 가정초 축성 및 제대초 봉헌있음. 3. 성시간: 3일. 저녁미사 후. 4. 사목회 상임: 4일 저녁미사 후. 5. 병자 봉성체: 4일. 사무실에 신청. 6. 노송신협 정기총회: 오늘 12시. 7. 모임: ① 성심회, 자모회(1일, 어머니미사 후) ② 반회장(3일, 전10시30분) ③ 울뜨레아(6일, 장엄미사 후) 8. 알림: ① 다음 주일(6일)은 "성소후원금 및 교무금 납부의 날" ② 구정 합동 미사에 불 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 ③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9. 금주 청소: 중노23, 24반. 치주 청소: 중노27. 인후1반

☐ 지난주 봉헌금: 869,040원 ☐ 교무금: 1,281,000원

* 복사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오늘 있습니다.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접수: 오늘부터 사무실에 신청바람.
3. 예비자 교리: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니다. 일시-2월20일 부터 시작합니다.
4. 성체감복: 2월3일 저녁미사 후
5. 회합: ① 자모회(2월3일 오전10시) ② 대건회(6일 공식미사 후) ③ 사목회(6일 저녁미사 후) ④ 울뜨레아(2월1일 저녁미사 후)
6. 영광글리핀 판매: 6일 새벽미사, 공식미사, 저녁미사에 울뜨레아에서 판매합니다.

금주 전례: 해설-유두서 독서-안철만 씨 부부 봉헌-지혜룡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하병규 씨 부부 봉헌-조백환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494,840원 ☐ 교무금: 1,160,9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오늘은 사회복지주일-2차 헌금

1. 모임: ① 성모회-공식미사 후 ② 성시간 및 성체감복-3일(목) ③ 사목회, 꾸리아, 요셉회-다음 주일
2.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다음 주일
3. 영세자 첫 고백: 5일(토) 저녁미사 후
4. 주의 봉헌 축일: 2일(수) 초 축성 및 제대초 봉헌
5. 설날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사무실에
6. 제대꽃 봉헌: 김삼순(아네스)-3만원
7.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 김봉길 ② 우경숙 봉헌-이 기봉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29,900(125,200)원 ☐ 교무금: 11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연중 제4주일(사회복지주일) 세계 기아민을 위한 2차 헌금있음.

1. 전례 특별 교육: 1월30일(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화비천원). 참석 대상-해설자, 성가대, 반주자, 전례 해설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 2. 서품식: 1월31일(월) 오전10시30분(중앙성당) ※ 우리 본당 김정민(라자로) 화사님이 부계 서품받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령 부탁합니다. 3. 초 축성: 2월2일(수) 저녁미사중 각가정에 쓰실 초 축성바랍니다. 4. 자모회: 2월2일(수) 오전10시30분 ※ 교무금: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금입니다. 신입 못하신 분 신입바랍니다. 금주 전례: 해설-김종호, 독서-곽영주, 이영이 감사 헌금: 조영수(비오) 5만원, 양수산나 일만원

☐ 지난주 봉헌금: 877,450원 ☐ 교무금: 1,14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사회복지주일

1. 오늘 2차 헌금: 세계 기아민을 위해 쓰여집니다.
 2. 오늘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회회
 3. 다음주 공식미사 후: 사목회
 4. 꾸리아: 매월 2째 주 공식미사 후
 5. 구역, 반장 모임: 2월4일(금) 미사 후
 6. 청소 봉사: 1구역 전례
- ☐ 지난주 봉헌금: 606,100원 ☐ 교무금: 1,556,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성만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1. 금주: ① 사회복지주일 세계 기아민 돕기 2차 헌금 ② 차량 축성식(공식미사 후) 2. 사제 서품식: 31일(월) 오전10시30분. 중앙성당 3. 성가집회(화) 오전11시. 4. 배애평회: 2일(수) 오전11시. 5. 성체감복 및 조배: 3일(목) 오전10시. 6. 사목회: 3일. 오전11시 7. 성모 성심회: 3일 오후3시 8. 병자 봉성체: 4일(금) 오후2시. 9. 전주 대건신협 정기총회 개최: 2월5일(토) 오후1시30분. 장소-전북 예술회관 4층. 10. 차주: ① 제단체장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오전10시, 가톨릭센터) ②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 재속 글라라 행회(후1시30분) ④ 요셉회(후6시) 11. 설날 합동 위령미사 접수: 2월8일까지 12. 클로리아 청년 성가대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8시 연수-아름다운 성가로 하느님을 찬미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11,470원 ☐ 교무금: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삼근

- ◎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2차 헌금.
- ◎ 축하! 무제서름 박동진(벨라도) 31일, 전10시30분, 중앙성당.
1. 설날 합동 위령미사: 연명을 위하여 사무실에 접수 2. 성시간 성체감복: 3일 저녁7시30분 3. 초 축성: 2일 제단과 가정에서 사용할 초 봉헌 예정. 4. 구역, 반회장 연수회: 1일 전10시30분. 담당자 파악 보고 5. 선택 12차 주일: 4~6일 나바위 6. 유아 세례: 5일 후2:30 7. 수녀원 인사 이동: 오말다 원장수녀, 김로마나 수녀 환영합니다. 8. 회의: 자모회, 부녀회-2일. 꾸리아, 한빛회-다음 주일 9. 구역미사: 1월 7-1 후3시, 9-2 저녁 8시, 2월 7-2 주3시30분, 9-3 저녁8시. 3일 7-3 전10시, 6-3 후3시, 4일 6-1, 2반 전10시, 9-4 저녁8시. 10. 중·고 교리교사 임원 개편: 회장-정대범, 부회장-함혜영, 총무-김은영

☐ 지난주 봉헌금: 1,297,770원 ☐ 교무금: 2,479,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사목회장 한병갑

1. 오늘은 세계 기아민을 돕기 위한 2차 헌금있습니다. 2. 성가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3. 안나회 첫모임: 2월4일 금요일 미사 후 4. 교리교사 정기총회: 5일(토) 오후6시 5. 꾸리아: 다음 주일 낮미사 후 6. 사목회: 다음 주일 오후8시30분 7. 설날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사무실에 미리 접수해 주십시오. 8. 목요일 가족미사: 금주-비사별, 차주-성원 9. 견진 교리: 매주 낮미사 후. 매주 금요일 오후7시30분. 10. 금주 전례: 김경숙·손금구, 독서·봉헌-장순아·김철환 차주 전례: 박순옥·강희연 독서·봉헌-김순아, 이기남

☐ 지난주 봉헌금: 753,240원 ☐ 교무금: 1,207,000원

* 효지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삼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섭

- ◎ 오늘은 연중 제4주일(사회복지주일) 세계 기아민 돕기 2차 헌금
1. 유아세례: 오늘 오후4시 2. 꾸리실로 환영식 및 울뜨레아 정기총회: 오늘 저녁미사 후(교육관) ※ 축하합니다. 꾸리실리스트: 김병설(파스칼), 이동재(안드레아) 3. 한자 봉성체: 2월1일(화) 오후2시 4. 구역 봉사자 모임: 2월2일(수) 오전10시30분 5. 성모기사회: 2월5일(토) 오전10시30분 6. 안나 요셉회: 2월6일(일) 11시 미사 후(교육관) 7. 예비자 교리 시작: 2월20일(일), 청년반(수, 오후8시), 주부반(목, 오전10시), 학생반(토, 오후6시), 직장인(일, 오전 9시30분), 노인반(금, 오전10시)

☐ 지난주 봉헌금: 1,434,850원 ☐ 교무금: 1,556,000원

* 효지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익도

- ◎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있습니다.
1. 모임 안내: ① 신영협동조합원 교육-공식미사 중 ② 사목회-저녁미사후 ③ 요셉회-공식미사 후 ④ 레지오 단원 교육-31일(월) 저녁7시 ⑤ 여성분과회-4일(금) 10시미사 후 2. 초! 축성: 2월2일(수) 저녁7시 미사 3. 성체감복: 3일(목) 10시 미사 후 4. 봉성체: 3일(목) 오후2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축하! 결혼: 30일(오늘) 12시 본당. 신랑-이순용 아오스딩, 신부-김화정 데레사. 6. 차주: 성소(신학생) 후원회에 가입하실 분과 후원회비를 접수합니다. 꾸리아회의 금주 전례: 해설-임찬수, 독서① 권영철 ② 이윤희, 봉헌 안내-김영길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 문형래 ② 이명자, 봉헌 안내-소길섭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59,420원 ☐ 교무금: 2,889,500원